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종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출판소 033-243-2076
표창재 053-985-1330
용산단 061-363-1495
덕양서원 010-8762-7799



발행인 신철수
편집인 신금철
인쇄인 송영철



신년사 (新年辭)



[신철수 도유사]

경애하는 평산신씨 종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70만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
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삼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평산신씨 대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격려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의 감
사를 드립니다.

지난 신축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며 그 끝도 모르는 채, 활동
이 자유롭지 못해 외출하기도, 사람을 만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중도 한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분들의 격려와
협조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진실하
게 종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종중이 추구해왔던 몇 가
지 사업을 진행한 보람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수원시에 대지 120평, 건평 602평의 지하 1
층 지상 7층의 건물을 45억원에 구입하여 월 1,9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춘천시 서면 주민센터에서 「시
조님의 역사 문화적 가치 계발 및 전승 추진방안」에 대한 학
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사용기간이 초과하
여 사용중지를 통보받은 대종중 아세아빌딩 엘리베이터 개
수공사를 실시하여 정상화하였고, 5월에는 춘천묘역을 중
심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조님의 얼을 기리고
그 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도이장가”를 초연하였습니다. 5
~ 6월에는 대종중빌딩 1층 용도변경 공사를 실시하여 커피
전문점으로 임대하고, 3층 전면에 “평산신씨대종중” 간판을
부착하여 대종중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하는 등 건물 이
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7월에는 “장절공 순절 1100년 기념사업추진회”를 발족
하여 종중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
작하였고, 8월에는 「장절공 신승겸장군 선양사업」의 학술연
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1100년 기념사
업추진위원회” 영순위원(이상공파 34세)이 “평산신씨 미래

교육시스템”을 기증하여 회의실에 영상회의 및 미래세대 교
육의 장을 구축하였고, 우리나라 15개 대성씨 회장단 회의
에 참석하여 종중의 법적 보호와 세금문제 등의 개선을 위
해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시조묘역 소나무 후계목 식목행사를 하였고,
12월에는 시조묘소 앞에 매장되었다는 옛날 묘비 탐사작업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터 편집·종규위원회에서 추진해온 대
종중 종규 및 제반 규정 등의 개정 및 제정 작업은 마무리 단
계에 있으며, 춘천 소재 대종중 소유의 토지매각은 대상 토
지 36필지 중 1차로 연고권이 있는 토지는 연고자와 협의
매각하였고, 잔여 토지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였으
나 매각되지 않은 9필지 토지는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
찰자가 없어 새해 초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평산신씨대종중 규약 및 제규정의 개정·제정작
업을 마무리하고 장절공 순절 1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의 업무추진을 활성화하여 시조님 제례의식을 강원도 무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춘천시가 주관하는 도포서원 복원
사업과 함께 시조 묘역 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는 역사
문화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

시조묘소 뒤편의 곡담 보수공사, 전사청 뒤편 축대보수공
사, 묘소 뒤편의 경사면에 있는 잣나무 등 잡목제거 후, 소
나무 식재 및 후계목 묘목장을 조성하는 등 묘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평산신씨대종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
으로 미래세대 시스템을 연구하며 대내외 홍보 및 협력체계
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평산신씨 종보의 구성 및 내용 등을 재검토하고, 춘
천시 요선동 5-13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종중의 안
정적인 수입구조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종중은 위왕대사로 남다른 충절에 빛나는 위대한 선
조의 후예로서 충효정신의 전통을 이어 온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으로 뭉쳐진 종중입니다.
우리 평산신씨대종중이 시대변천에 부응하여 함께 발전하
는 종중이 되기 위하여 청렴한 정신과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정직과 진심을 다해 원칙을 지켜 종사에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장절공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산인의 자
긍심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서 알차
고 힘차게 화목한 종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시
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는 70만 중원 전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편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원단(元旦)

평산신씨대중중 도유사 철수(澈秀) 拜上

편집·종규위원회(11~14차) 개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종규의 개정과 신규 제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편집·종규위원회(위원장 彪均)는 종규의 개정·신규제정(안)에 대하여 2021년 8월 전체 총회구성원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2021년 12월 10일(금) 제14차 편집·종규위원회를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표균(彪均)위원장, 홍현(弘鉉)부위원장, 언기(彦基)·주철(周澈)·동기(東基)위원과 대중중 철수(澈秀)도유사까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점들을 발췌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날의 회의를 통해, 평산신씨대중중 규약의 “종벌”이라는 용어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으며 젊은 중원들이 난해하게 여기므로 “징계”로 변경하되, “도유사”를 현대적 용어인 “회장”으로 변경할 것 인가에 대하여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기술 회사 구글(Google)에서 “도유사”를 검색하면, 평산신씨대중중의 역대 도유사 사진과 함께 평산신씨대중중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광고효과가 어디 있겠는가? 역사성·차별성·독창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등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었다.

또한, 신규 제정되는 대중중도유사 선거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월 15일 부터 도유사 선출일의 일주일 되는 날까지”로 수정하는 등의 논의와 위원회 의결이 있었다.

철수(澈秀) 대중중도유사는 그동안의 편집·종규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정·부도유사회의, 상임유사회의, 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까지 표균(彪均)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2021년도 제3차 제례·계보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19일 11:00 제례·계보위원장, 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임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의사정족수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간사가 보고한 후, 도유사(澈秀)는 인사말에서 『지난 춘천 추향사에 앞서 홍균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 사임의 뜻을 밝혀 왔지만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내년도 춘향제까지 재임을 당부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사임서를 접수하고,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임 중 대중중 발전에 헌신해 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부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후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홍균(興均) 위원장은 이 임사를 통해 『2014년도 본 위원회 위원으로, 2017년도 위원장으로써 여러분의 협조로 소임을 다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특히 용철 부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 양으로 제례봉송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특히 금년도 춘향제는 전일 입제하여 의욕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한 예행연습이 기억에 남는다』 하고, 한편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사업을 앞두고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도유사와 위원장이 퇴실한 후, 용철 부위원장이 회의를 선언하고 간사(금철 문화부장)는 모니터 PPT와 유인물 회의자료를 이용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다. 이어 용철 위원장은 위원장, 위원 사임에 따라 선임을 위해 내부에서 추천 할 것인지, 외부에서 추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고, 후임자의 잔여 임기 건, 위원회 내부에서 승계하는 건, 제례전문성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로 하는 건, 성균관교육 이수자는 朝鮮의 제례의식은 참고로 하되 평산신씨의 정체성을 가지고, 춘천 시조제례 경험이 많은 분을 추천하자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제례위원으로써, 수차 제례 집례 경험을 가진 문철 전 제례위원을 이구동성으로 추천하였다.

이에 용철 위원장은 “저는 강원도 화수회장으로써 할

일이 많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외부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우리 묘소 제례행사에 경험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도 하신 문철 대중중부도유사를 선임하면 업무의 연계성과 당면한 사업들을 잘 추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구하자 모두 동의 하였다.

그리고 공식인 위원은 대중중에 위임하기로 하는 한편 제례행사를 제례위원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건은 차기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추향사 동영상 시청하고 회의를 종결하였다.

1100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절공순절 1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약칭 1100년위원회)는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산신씨대중중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용철(龍澈) 위원장, 문철(文澈)·방식(芳湜) 분과위원장, 대수(大秀)·현주(鉉珠)·영순(英淳)·동천(東天)·용환(龍煥) 전문위원과 현기(鉉基)·금철(金澈) 간사가 참석하여 점심식사도 마뒀가면서 진지하고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철수(澈秀) 대중중 도유사는 1100년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사업에 대한 구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통해 장절공순절 1100년 기념사업 추진의 취지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진척이 되도록 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당부하고, 방식(芳湜) 분과위원장과 동천(東天)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용철(龍澈)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많은 위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10월 14일의 추향사를 잘 봉행하였으며, 내년에는 1100년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접어드는 해가 될 것으로 내년도 사업의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분과위원별로 준비된 회의자료의 설명을 진행하면서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자고 하였다. 재정경제분과위의 현주(鉉珠) 전문위원은 춘천토지 매각의 당위성과 배경, 그리고 진행상황을 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매각대

금으로 춘천시 요선동 5-13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 개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분과위의 대수(大秀) 전문위원은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장절공 신승점장군 선양 학술연구 용역”의 내용을 준비된 자료로 설명하고, 학술연구의 결과는 2022년 1월 7일(금) 춘천시 서면사무소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절공 제례의식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제3차 장절공 신승점장군 선양 학술연구는 강원도와 춘천시의 2022년도 예산편성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대중중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래교육분과위의 영순(英淳) 전문위원은 준비한 화상(畫像)설명자료로 평산신씨대중중의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과 차세대중원의 교육사업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결과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하였다.

대외홍보분과위의 용환(龍煥) 전문위원은 대외협력의 추진을 위한 중원 데이터베이스(Data Base)구축, 대중중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중원들의 조직화, 대내외 홍보활동의 계획, 역사·문화·예술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정적인 토의가 이어졌으며, 방식(芳湜) 분과위원장은 1100년위원회의 목적은 평산신씨의 재건립(再建立)이라고 생각되며, 이 목적을 명확히 공유해야 할 것이며 미래교육분과위와 대외홍보분과위에서 제기된 데이터베이스구축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용철(龍澈)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별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자료화하여 12월 중반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4시간여 계속된 회의를 마쳤다.

시조 장절공묘소의 옛날 묘비(墓碑) 탐사 및 발굴



대중중(도유사 澈秀)은 신승점장군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묘비가 1965년에 세워지면서 기존에 있던 묘비를 땅에 묻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지금으로부터 403년 전의 1618년(光海 10년)에 세웠다는 옛

묘비를 찾아내고 발굴해 낸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물론 장절공 신승점장군의 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옛 묘비의 탐사와 발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의 묘비 뒷면에는 「조선조 광해군 10년 3월에 후손인 강원도사(江原都事) 익수(翼壽)가 세운지 340여년이 지나 비바람에 마모되고 떨어져 나감이 심하여 계단아래 묻고 다시 묘비를 세운다 1965년 3월 대한민국 검찰총장 신직수(植秀) 謹記」라고 새겨져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반에 현재 분포하여 있는 싱크홀이나 지장물 등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고주파의 전자파신호를 지반에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반사 이벤트를 해석하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하탐사레이다) 탐사기법으로 탐사를 실시하였다. 강원화수회 용철(龍澈)회장, 대수(大秀) 전문위원, 대중중 총무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1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의 탐사를 진행하여, 12월 7일 사진과 같이 4곳의 위치에 묘비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다.

이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청에 발굴의 허가를 신청하고 발굴작업은 춘천시에서 주관하며 춘천시 문화재위원들이 발굴을 해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신승검장군 묘역의 소나무 후계목 식목행사



대중중(도유사 澈秀)에서는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춘천시 서면신승검장군 묘역에서 소나무의 후계목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대중중의 澈秀 도유사와 鉉澤 묘역관리소장 등 직원 전원이 참가하고, 강원화수회에서 東銀 고문, 龍澈 회장과 大秀·鉉珠·正鉉·鉉睦·聖浩 회원이 참가하여, 묘역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작은 소나무들 중에 약 30여 그루의 후계목을 선별한 후, 분 뜨기를 하여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춘천의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였지만 화창한 햇살에 바람 한 점 없는 날씨로 작업자들 모두의 얼굴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2시간 가까운 작업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였다.

특히, 鉉澤 춘천묘역관리소장이 식목작업에 필요한 물을 대형물통에 충분히 준비하고, 마사토 역시 많은 부대를 준비하여 이식하는 후계목들의 활착률을 높

이고, 이식한 후계목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지지대를 세우고 고정시켜 견실한 생장을 도모하였다.

중중기본법 입법추진을 위한 중중실무자 회의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김호일) 주관으로 “중중자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기본법(약칭 중중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성씨중중 실무자회의가 2021년 12월 15일(수) 오후 5시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어, 대중중에서는 현기(鉉基) 총무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범성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부장, 권오상 안동권씨대중회 사무총장, 김경연 김녕김씨 충의공파대중회 사무총장, 서창한 이천서씨대중회 상임부회장, 석민영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10명이 참석하여, 크고 작은 많은 중중들이 상상할 수 없는 중부세 폭탄을 맞아 중중자산의 유지·관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례들을 발표하고, 중중의 농지소유가 불가한 점, 중중의 업무상 발생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 불합리한 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중중이 종교단체에 준하는 법인으로 법제화되어 면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2022년도 상반기 중에 가시적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초에는 보도자료를 내어 중중기본법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각 중중에서는 입법운동의 서명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입법운동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모 중중의 경우 작년에 360만원이었던 중합부동산세를 금년에는 4,990만원 납부해야 했다는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철수(澈秀) 대중중도유사는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우리 평산신씨대중중에서도 입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년도 1월에는 서명작업을 각 파중중과 유적지중중, 시도화수회의의 협조를 받아 대중중차원에서 추진하자고 하였다.

「사임당 소사이어티」와 MOU체결



대종중 철수(澈秀)도유사는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평산신씨 대종중 회의실에서 비영리 국제기구인 “사임당 소사이어터”의 장세희 총회장과 평산신씨 19세손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열과 정신을

선양해 나가자는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사임당 소사이어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열과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행복을 축하해 주면서 선(善)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장세희 총회장 등 임원 5명이 2021년도 대통령봉사상 금상수상자로 선정되어 바이든(Joe Biden) 미국대통령의 상장을 수상하였다.

이 단체의 임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열과 정신을 계승하여 자기를 계발하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부응하는 지혜롭고 이상적인 여성상과 어머니상을 제시하며, 실천하고 전파해 나가기 위해 평산신씨 대종중과 업무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여,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상호협력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壯節公 申崇謙 將軍 事績』각 院祀 事實 도포서원 편



도포서원은 춘천부의 서쪽 15리쯤인 소양강의 도장포(道藏浦)의 오산(鰲山)(지금 춘천시 서면 신내리)에 있었다. 일찍이 효종원년(서기 1650)경인(庚寅)에 본도 관찰사(觀察使) 박장원(朴長源)이 비방동 장절공 묘소 아래에 창건하여 高麗太師 壯節申公 諱 崇謙(고려 태사 장절신공 휘 승겸)을 배향하였더니 숙종20년(서기 1694) 갑술(甲戌)에 본도 관찰사(觀察使) 후에손(後裔孫) 양(懷)이 이곳으로 이건(移建)하면서 후손 영의정(領議政) 문정공 휘(諱) 흠(欽)과 증(贈) 도승지(都承旨) 金公 諱 敬直(경직)을 배향하였는데 고종 8년(서기

1871) 신미(辛未)에 조령(朝令)으로 훼철(毀撤)되었다. [원우(院宇)의 편액(扁額)은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춘천 “道浦書院” 154년 만에 복원이 추진되다

『시조 장절공 묘역과 연계 주변 문화유산과 함께 역사·전통문화 체험 공간 될 것』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사라진지 154년 만이다. 춘천시는 서면 신매리 조선시대 書院이던 '도포서원'을 3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포서원은 효종 때인 1650년 지방유림들이 후삼국 ~ 고려초기 무신(武臣) 평산신씨 시조이신 휘 승겸(諱 崇謙)장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했다.

그 뒤로 약 170년간 조선시대 문신(文臣)이었던 신흠(申欽), 김경직(金敬直) 등 유림을 배향했으며, 당시 교육기관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1868년)에 따라 고종 8년 도포서원을 헐었다.

춘천시는 그동안 춘천역사문화 연구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춘천의 조선시대 교육기관 연구 및 복원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도포서원과 문암서원, 구봉서원 등 3곳의 지표조사, 문헌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도포서원은 지표상에 유물 수습이 쉬운 점



[도포서원 옛 부지서 발견된 유물]

등을 이유로 우선 복원하기로 하여 현재 평산신씨 대종중에서도 시굴 조사 등에 동의한 바 있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 춘천시는 내년에 전체면적 9천157㎡

의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으로 정밀발굴조사, 문화재 지정신청 등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인근 역사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서상리 3층 석탑, 신승겸 묘역 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함께 역사문화 향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전국매일신문 등 보도

2021년도 하반기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접수현황

■ 수단 신청시 준수사항

하반기 대종중 전자대동보를 수단함에 있어, 각 파종중에서는 수단자로 부터 접수를 받아 심의하여 대종중

에 수단 신청하면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 대중중에서 수단을 재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 파종중에서는 올미보(2015년) 또는 각 파보를 근거로 수단지 작성 시 착오로 인하여 상계가 바뀌는 상황이 다 소 발견되어 수단자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자와 확인 절차를 위해 접수 시 수단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관련서류)과 각 파종중 도유사의 날인을 하고, 수단자에게 접수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대중중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단자들께서 대중중으로 수단 신청을 빈번히 하고 있는 바, 각 파종중에서는 반드시 종원들로 하여금 파종중으로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업무의 번거로움이(2중)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중중에서는 전반기(5월) 후반기(11월)에 마감하여 대중중에서 검토하여 족보사로 등재의뢰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하반기 각 종중별 접수 및 배분현황

가. 총 접수인원 : 283명

나. 수단 접수비 : 8,945,000

다. 배분 : 대중중(30%):2,683,500원,
파종중(70%):6,261,500원(사간공파 선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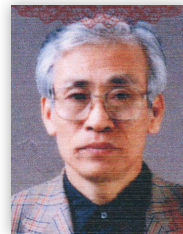
순위	파 별	입금일	신청자	인원	접수비	파종중	대중중	비 고
						70%	30%	
1	밀직공	12/5	희철	1	20,000	14,000	6,000	
2		11/17	원균	3	85,000	59,500	25,500	
			계	4	105,000	73,500	31,500	
3	문희공파	7/6	덕현	5	125,000	87,500	37,500	
4		7/21	태희	12	420,000	294,000	126,000	
5		8/2	동철	5	210,000	147,000	63,000	
6		8/9	동영	5	255,000	178,500	76,500	용환
7		12/3	정용	5	155,000	108,500	46,500	
8		12/9	덕현	3	99,000	69,300	29,700	
9		12/10	동운	7	305,000	213,500	91,500	
			계	42	1,569,000	1,098,300	470,700	
10	정언공	12/14	현경	3	70,000	49,000	21,000	
			계	3	70,000	49,000	21,000	
11	한성윤공파	7/21	준식	2	11,000	7,700	3,300	
12		12/3	기영	21	952,000	666,400	285,600	
13		12/8	상훈	34	956,000	669,200	286,800	
			계	57	1,919,000	1,343,300	575,700	
14	사간공파	7/1	정섭	18	230,000	161,000	69,000	
15		8/5	동윤	6	251,000	175,700	75,300	
16		11/23	수철	4	50,000	35,000	15,000	
17		12/2	동욱	3	80,000	56,000	24,000	
18		12/8	성진	4	131,000	91,700	39,300	
19		12/8	동운	67	1,340,000	938,000	402,000	세대변경
			계	102	2,082,000	1,457,400	624,600	
20	제정공파	12/22	경철	9	450,000	315,000	135,000	
21		12/23	일태	35	1,420,000	994,000	426,000	
			계	44	1,870,000	1,309,000	561,000	
22	판사공파	8/12	수철	2	50,000	35,000	15,000	
23		11/19	상철	1	50,000	35,000	15,000	
			계	3	100,000	70,000	30,000	
24	진사공파	11/24	종균	6	0	0	0	수단착오
25		12/8	현동	13	710,000	497,000	213,000	일균
26		12/8	현동	9	520,000	364,000	156,000	진균
			계	28	1,230,000	861,000	369,000	
	합 계			283	8,945,000	6,261,000	2,683,500	
	제정공파		홍준		150,000	수단 부적격		반환예정

2022년도 대중중 표창자 및 장학생 선발

- 선발인원 : 표창 -10명내외, 장학생 -20명
- 접 수 : 2022년 1월 1일 ~ 1월 31일
- 표창 시상 : 2022년도 3월 말 대중중 정기총회 (또는 별도통보)
- 장학생 선발 : 2022년 2월 말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 : 대중중 홈페이지, 또는
종보 191호(2021. 10. 25) 참고

파종중 · 화수회 소식

현령공 파조(諱鑑) 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호균 도유사]

2021년 11월 6일(음10월2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서 맑고 포근한 날씨에 종원10여명이 모여 현령공(휘 鑑) 祖의 단소에서 도유사(豪均 32세) 주관하에 향사를 봉행하였다. 공께서는 고려조에 집현전랑(集賢殿郎)을 지내시다가 조선이 개국하자

서흥 현령에 제수되었으나 불취하고 두문동에 들어가 고려 유신들과 함께 두문동 화재 시 순절하였다.

향사 분정은 초헌관 재희(載熙)宗(서울 은평구), 아헌관 언성(彦盛)宗(경기 양주), 종헌관 호균(鎬均)宗(인천), 대축 언국(彦國)宗(경기 파주), 집례에 언기, 언식 宗이 분정되었다.

이어 오찬을 한 후 언기 총무로 부터 2021년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호균 도유사 인사 말씀에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의 종원이 참석했지만 2022년도 壬寅年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모두가 함께 파조님을 추모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향사를 봉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코로나로 종원찾기 운동이 결실을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하면서 종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희공 파조(諱 槩) 향사 봉행



[봉식 도유사]

2021년 신축년 문희공파 종중은 (도유사 봉식) 11월 5일 (금요일, 음력 10월1일) 11:00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03-7에 소재한 문희공 파조 단(壇)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향사를 축소 봉행하기로 하여 제례위원과 일부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문경 처사공종중 동국(東國), 아헌관 음성오갑 판윤공종중 완식(琬湜), 종헌관 경남사천 재균(梓均), 집례 음성오갑 동원(東元) 제례위원장, 대축에는 음성오갑 동령(東玲)이 맡아 엄숙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문희공 묘소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광평리 유좌에 정경부인 선산김씨 쌍분으로 묘셔져 있으나 남북이 분단된 이후 향사를 봉행하지 못하다가 1968년 6월에 종원들의 뜻을 모아 하당리 현 위치에 묘셔져 있던 초배 정경부인 평강채씨 묘소 좌우에 두 분의 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룻날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봉식(鳳湜)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방침으로 불가피하게 문희공 향사를 축소하여 봉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제례위원 및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매년 향사 후 개최하던 정기총회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였다.

정언공 파조(正言公 派祖) 휘 曉(暁) 향사 봉행



[문철 도유사]

정언공파 종중(도유사 文澈)은 2021년 11월 5일(금요일, 음력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선영에서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향사는 코로나19의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상임유사들까지도 참여를 제한하고, 헌관과 제집사 중심의 최소 인원으로 봉행하며 점심식사도 각자 별도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여, 참제인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흥균(興均) 대중중 제례계보위원장의 집례로 파조 휘 효 정언공(正言公)과 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 내외분의 향사와 큰아드님인 휘 자희 전직공(諱 自熙 殿直公)과 부인 강릉김씨(江陵金氏)의 향사를 봉행하고, 문철(文澈) 정언공과종중 도유사의 집례로 정언공의 셋째 아드님 휘 자계 주부공(諱 自繼 主簿公)과 부인 평강채씨(平康蔡氏)의 향사와 공의 손자이신 휘 세경 사직서령공(諱 世卿 社稷署令公)과 부인 고령박씨(高靈朴氏)의 향사를 봉행하였다.

청명한 날씨에 지수(之秀), 철수(澈秀) 명예도유사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자손들이 정성스럽게 제수를 준비하고 경건하게 향사에 참여하였다.

▶ 2021년도 정언공 향사 분정표

구분	正言公(정언공)	殿直公(전직공)	主簿公(주부공)	社稷署令公 (사직서령공)	山神祭(산신제)
초헌관	鳳均(봉균)	爽圭(석규)	最均(최균)	莊均(장균)	熙澈(희철)
아헌관	鉉圭(현규)	彦權(언권)	奉均(봉균)	相澈(상철)	
종헌관	吉錫(길석)	鉉鎭(현진)	東國(동국)	鉉哲(현철)	
진설	鉉穆(현목)				
집례	興均(흥균)		文澈(문철)		
대축	相澈(상철)		興均(흥균)		
우집사	三澈(상철)				
좌집사	熙澈(희철)				

한성윤공파 파조 605주기 향사 / 정기총회



2021년 10월 24일(음 9월19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산 39-6에서 코로나 19로 많은 종원이



[동수 도유사]

참석하지 못했으나 조출하고 엄숙하게 도유사 동수(東洙) 주도하에 향사가 봉행되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 향사를 향사답게 봉행하지 못한 서러움을 벗고, 서천 둔덕리 월명산과 둔덕리 산성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마을 뒤, 월명산 산줄기의 작

은 봉우리에 숲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전망 좋은 곳에 2020년 완공을 본 派祖壇을 조성하여 멀리 함흥에 계시는 파조님을 추모하면서 벽찬 마음으로 휘(諱) 하(夏)조(祖)의 향사를 봉행하였다.

분정은 초헌관에 동신(東信/서천 장령공문중), 아헌관 재덕(載德/서천 장령공문중), 종헌관 승만(承萬/광주 선원공문중)宗이, 집례 준철(峻澈/서천 장령공문중), 축관 상두(相斗/서천 장령공문중), 집사 경철(庚澈/광주 선원공문중) 장섭(將燮/서천 장령공문중)宗이 홀기에 따라 진행하였다.

향사를 마치고 파조의 손자인 장령공 재실에서 파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성금을 보내주신 분

서천 장령공 종친회 10만원, 중추공 종친회 10만원, 군수공 종친회 10만원, 서천 동신 10만원, 준철 10만원, 재덕 10만원, 용석 10만원, 광주 선원공 종친회 10만원, 광주 동수 10만원, 현대 10만원, 승만 2만원.

▣ 연회비를 보내주신 임원(2021년 1월 1일 ~ 현재)

도유사 동수 : 50만원, 고문 동우 : 20만원, 효현 10만원, 고문 윤하 10만원
명예도유사 규철 10만원, 부도유사 승만 20만원, 부도유사 계만 20만원
상임유사 재순 20만원, 상임유사 명철 20만원
총무유사 주철 30만원, 감사유사 형식 30만원

※ 연회비, 성금을 주신 일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21년 10월24일부로 연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기총회]

“목숨을 돌보지 않고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켜 낸”

사간공 諱 浩 향사 봉행



[근택 도유사]

공의 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으며, 2012년 4월 20일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으며,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다. 『이 묘는 고려 말 조선 초기 문신인 신호의 묘이다. 신호는 1354년 공민왕 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 우문

관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나 1360년 관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평소 교우가 두터웠던 정몽주의 권유로 1390년 공양왕의 지신사가 되었으나 2년 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성혁명에 비분을 느껴 평산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로 생을 마쳤습니다. 묘는 실전되다가 1715년 숙종때 표석을 발견하여 위치가 확인되었고 1432년 세종 때에 건립된 묘 표석과 묘갈이 묘역 입구에 있습니다. 가선대부 전 이조참판 민병승이 비문을 짓고, 단산 장우성이 썼으며 18세손 신현국이 비에 새겼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1985년 10월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다.』

2021년 11월 9일(음 10월5일) 12시에 공의 묘소에서 정부의 코로나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임원 중심으로 향사를 봉행하였다. 향사 분정은 초헌관 봉철(鳳澈)미국, 아헌관 홍균(弘均)평택 구룡중중, 종헌관 동열(東烈)금산, 도집사 堂上 동하(東夏)대구 매곡중중, 堂下 동훈(東勳)가평 동막중중, 축관 금철(金澈)영천 가상문중, 진설 호철(好澈)이천 중추공문중, 봉향 동욱(東沃)미국, 봉로 홍섭(洪燮)이천 중추공문중, 사준 선철(宣澈)평택 구룡문중, 전작 동운(東雲)양주 참의공중중, 집사 동권(東權)이천 중추공중중, 알자 동복(東福)가평 경열공문중, 직일 백순(白淳)서울 경력공중중 등 참제자들이 함께 경건히 봉행하였다.

근택(根澤) 도유사는 인사말씀에 이어 참석자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2022년 향사에는 코로나가 진정되어 예전과 같이 많은 종원들이 함께 향사를 봉행하기를 기원하고, 연천에서 오찬을 하면서 정담을 나누는

화합과 돈목의 자리가 되었다.



판사공(휘 득청) 시제 봉행



[성수 도유사]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 15세손 이시며 판사공파의 파조이신 判事公(諱 得淸)의 시제가 2021년 10월 8일(음) 영덕군 창수면 소재하고 있는 공의 묘소에서 성수 도유사 및 경향각지 후손 종원들이 참사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시제는 초헌관 문웅, 아헌관 상경, 종헌관 재봉이 경건하게 중시조 묘전에 잔을 올리고 위대하신 선조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였다.

공은 고려왕조의 대학자로서 한국가사문학의 효시인 歷代轉理歌를 지어 올려 왕의 실정을 경계하였으며 마침내 고려조가 망하자 동해에 몸을 던져 殉死 하신 충신이다.

우리 승지공(承旨公)문중 享祀 이야기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응촌리]

고조·증조·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내가 태어난 곳이 ‘매배이’라는 마을이다. 그 동네 뒷산 기슭에 있는 어느 묘소를 ‘뒷 산소’라고 하였다. 그 묘소에 매해 첫서리 내릴 녀에 제사(祭祀)를 지냈다. 그 날은 동네 아이들은 너나없이 새로 빨아 꿰맨 검정 겹바지에 분홍색 겹저고리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 그런 차림으로 산소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경정 걸음을 걸었다.

향사(享祀)에 오신 노인들은 도포에 갓을 쓰고 젊은 어른들은 짧은 머리에 두루마기 차림이었다. 수업이 덥수룩한 어른이 뭐라고 큰 목소리(唱筊)로 외면 참여한 사람들이 절하느라 엎드렸다 일어설 적마다. 땀땀하게 풀 먹여 다린 두루마기가 접혔다 퍼지며 “사그락~사그락~”소리가 났다. 제사가 끝나면 어른들은 권커니 갖거나 음복하며 이야기로 법석거렸다. 그러는 산소 옆에 과방이 차려졌고, 그 과방은 동네 허드렛일 도맡아 하는 하인(下人)과 서너 명의 어른들이 과방꾼이었다.

그 과방꾼들이 떡과 부침개와 과일 등을 도툼 도툼하고 갈썩갈썩하게 썰었다. 그렇게 제물 써는 것을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그 앞에 작은 보자기를 펴놓았다. 그러면 꺼칠꺼칠하고 갈퀴 같은 과방꾼의 손으로 제수 노느매기(여러 몫) 한 몫씩을 덥석 얹어 주었다. 맛있는 제수를 싹 보따리를 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집으로 뛰어 왔다.

그렇게 싸온 제수 중에 먹고 자실 것도 없이 알팍하고 알량한 사과 쪽을 어머니가 세 도막으로 자르신 연유가 있다. 지금은 풍요로운 세상이라서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넘쳐난다. 그러나 내가 그 제수 받아오던 그 당시에는 사과를 먹기는커녕 구경하기도 어려운 귀물이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셋으로 자른 사과를 아버지와의 이 두 아들에게 한쪽씩 맛을 보이려고 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산소에 올라 온 코흘리개들에게 제수를 나누어준 그 풍습. 지금 내가 80 넘은 늙마가 되어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 유습으로 향사에 참여 못한 동네 노인들과 그 식솔들에게 골고루 맛보게 하는 본보기 유풍으로 생각된다.

그 향사 휘(諱)이제(以悌)(22세) 증좌승지(贈左承旨)님의 시제(時祭)를 그러께도 (올해로 부터 3년전의 해) 작년에도 올해도 지내고 있는지, 또 옛날처럼 그 제수 노느매기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추운 겨울에만 하얀 게 아니고 사시사철 하얀 서릿발을 머리에 인 내가 그 시향에 참례하여 그 예쁜 똥강아지(아이)들에게 제수 노느매기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언제 고향에 가볼 지 기약이 없어 안타깝기 한량없다.

위에서 얘기한 그 휘(諱)이제(以悌) 증좌승지(贈左承旨)의 묘소가 있는 곳은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응촌리 “매배이 매봉산”기슬기다. 그리 불렀던 곳인데 6.25 전쟁포성이 뚫은 수십년 후, 인터넷 위성지도로 우리고향을 찾아보니 황해남도 봉천군 “매촌리”로 변경되었다.

위 휘(諱)이제(以悌) 할아버님 족보를 보면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다.

효자 어르신 집에서 십 여리길 중간에 넓고 깊은 냇물을 비가오고 눈이 내려도 효자는 맨발로 물 건너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다고 한다.

그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렇듯 효성이 지극한 분이 차가운 냇물을 맨발로 건너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여, 인근 주민들이 재물(財物)을 내고 품삯도 받지 않고 놓은 다리의 이름을 ‘효자교’라 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그 효자의 직계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비각(碑閣)을 짓고 효자교비석(孝子橋碑石)을 새겼다. 본래는 그 비각(碑閣)과 효자교비석(孝子橋碑石)을 효자교(孝子橋) 곁에 세워야 옳을 일 일 것이다. 그러데 관리 보전을 잘 하기위해 휘(諱)이제(以悌) 할아버님의 직계손이 번성하고 있는 매배이 어귀에 세워져있다.[인공위성 지도로 1950년 이후에 생긴 조그만 저수지 상류 쪽 동동남(東東南) 간 방향으로 10~20 미터쯤에 비각이 있는 것, 이 글 쓴 필자도 보았다. 내가 그 비각(碑閣)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다. 현 북한공산당 정권에서 농지 넓히느라 그랬는지, 재종조님·큰댁과 내가 난 우리 집 이웃에 여덟 채가 없어진 자리가 밭으로 변한 것으로 봐서 비각과 비석을 안 없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할아버님의 좌승지(左承旨)벼슬은 실직(實職)이 아니다. 그 어르신 손자 태웅(泰雄)의 수직(壽職)(조선 때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學行)이 높은) 은전(恩典)으로 내려준 증직(贈職)이다. 위 내용이 족보에 기록처럼 매배이에 터를(開基)잡은 휘(諱)이제(以悌)할아버님의 큰아드님 간(侃)역시 증금부도사(贈禁府都事)이고 장손 세웅(世雄)은 실직(實職)진주목사를 하였다.

휘(諱)이제(以悌)할아버님의 묘소가 있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매배이(응촌리), 나 여덟아홉 적 기억으로 내륙 산골 토박한데다 논은 적고 밭이 많아 쌀밥보다 조밥을 많이 먹었다. 것처럼 거친 음식 먹던 곳을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

可均(정언공파 32세)

기획시리즈 연재



삶의 뿌리. 아!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께서 살아오신 세거지와 집성촌이 개발로 사라져 가고 후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구전으로 전해지던 흔적들마저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려한다. 이를 통해 각 종원 간, 문중 별 또는 종적, 횡적교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 문중의 종원들께서 동참해 주기를 소망한다.

제3편 사간공파 通德郎(彦淑公) 入島祖 이야기

◎ 入島祖 : 22世 연숙(彦淑)

▶ 上系 : 15세 思簡公 諱 浩(호) - 16세 敬宗(경종) - 17세 守福(수복) - 18세 永和(영화) - 19세 措(조) - 20세 應抗(응항) - 21세 澤(택)

濟州 入島祖(제주 입도조) 諱 彦淑 公은 資憲大夫戶曹判書(자헌대부호조판서)인 思簡公 諱

浩의 7세손으로 진산군수를 지내시고 贈兵曹參判(증병조참판)이신 諱 澤(택) 21세의次子이다.



諱 彦淑公의 字는 同洽(동합)이며 通德郎(통덕랑)이다. 先考公 諱 澤은 禮賓寺直長(예빈시직

장)을 거쳐 진산군수로 재임시 임진왜란을 뒹하여 관아를 지키고 왜적을 토벌하다 왜적에게 살해되고 가족까지 포로로 잡히는 비운을 당하시었다.

임진년((西紀 1592)에 15만 대군으로 우리 강토를 침범한 왜구는 명나라 원군과 권률장군의 반격으로 화의가 되었으나 정유(1597)년 왜구가 재침하니 임란에 놀란 겁부들은 모두 풍지박산 도주할 때 정유년 10월 진산군수 申公 澤은 孱弱(잔약)한 병사와 고립된 城으로 몸소 펼쳐 앞장서 혈전고투하여 조국을 수호하려는 丹誠(단성)으로 선혈로 전사하고 처자는 사로잡히니 국가 위란지추에 각기 본연의 자리로 나아가 국가의 방패가 되었다.

순국하신지 사백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공훈은 혁혁하다. 전란이 평정되어 公은 선무공신록에 등재되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公께서 제주도에 入島(입도)하게 된 것은 조선 선조30年(西紀1597)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이다.

입도조의 생몰과 入鄉(입향)년대는 미상이나 선조실록에 전라관찰사 黃 愼(황신)의 狀啓(장계)에서 21世 諱 澤에 관하여 [爲敵所害](위적소해)요, 처자는 [俱被擄](구피로/가족이 함께 포로)라고 기록된 고증을 고찰할 때 휘 택은 진산에서 왜적에 피살되고 公의 長子 諱 彦伯(언백)과 次子 諱 彦淑(언숙)은 서기1597년(丁酉) 왜적에게 被逮(피체)후 탈출하시어 遁避(둔피)생활을 하시었다.

長子 彦伯은 전라도 무안에 정주하고 次子인 諱 彦淑은 제주에 입도하여 定住(정주)하시게 된 것이며 [선조실록]의 기록상 諱 澤이 殉死(순사)하신 시기는 宣祖 25年(1592)에서 宣祖 30年(1597)경으로 추산되고 諱 彦淑公이 출생년도는 兄인 諱 彦伯이 서기 1563年으로 家譜(가보)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서기 1565년 전후가 된다.

世傳(세전)에 의하면 公은 풍채가 당당하고 志節(지절)이 慷慨(강개)했으며 天資(천자)가 영특하고 용모가 후덕하고 儀表(의표)가 단아했으며 性情(성정)이 寬仁(관인) 했다.

公은 선대조의 향사에 독실했으며 자손들의 훈육이 엄격하였다. 학문은 하되 과거에 응시말고 벼슬과 부귀를 탐치 말며 質朴(꾸미지 말고)하고 근면하라고 훈도하였다고 한다. 기반을 구축하

고 평산인으로서의 자존과 긍지로서 入郷循俗(풍습이나 풍속)하며 여생을 보냈다.

거친 땅 거센 바람 속에 꾸밈없이 근면을 신조로 외로움을 달래며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산인으로서의 자존과 긍지로서 입향 循俗(순속)하며 여생을 보냈다.

入島祖(입도조)로서 기초를 닦은 지 世守(세수) 사백여년 入島導(입도도) 世譜에 등재된 후손이 일만 여명에 이를 만큼 번창하여 제주에 세거하며 후자는 경향각지에 출향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후손들의 偉大한 上代祖(상대조)이다.

후손들은 평산인의 자긍과 제주의 전통을 쌓으며 제주문화의 주체로서 公을 推重(추앙하고 존중)하며 혈맥을 계승하고 있다.

配(배)는 金海金氏 恭人(공인)이고 長子(장자)는 嘉善大夫(가선대부) 諱 [福]이며 次子(차자)는 嘉善大夫 諱 [禎]이다.

公의 墓는 제주시 화북동 삼동수원이고 묘좌이며 매년 4월 첫 일요일에 입도조의 향사를 봉제하며 입도조의 얼을 기리고 있다.

제보 : 제주도화수회 사무처장 正湜(사간공 34세손)

종 원 동 정

경북 영천시, '제1호 농업명장' 길호宗 선정



영천시는 2021년 제1호 농업명장으로 포도분야 길호(吉鎬)宗을 선정하고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길호宗(사간공 38세손)은 先親(휘 載五 字 久男)과 모친 星州 呂영옥 여사의 1남 5

여의 장남으로 선친께서는 대구 표충재 문화유사로 오래동안 종사에 기여하셨다.

지난 11월9일 市에 따르면 지난 7월 침체된 농업·농촌을 변화시키려는 선구적인 농업인을 발굴해 농업명장으로 선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선정된 농업명장에게는 인증패와 함께 기술보급·전파를 위한 기술교육장 운영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제1호 농업명장으로 선정된 길호 포도명장은 지역에서 25년간 포도를 재배하면서 지난해 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지역의 포도농업발전을 위해 2015년 '영천시 별빛포도연구회'를 조직, 재배기술을 지역농가에 보급한 공로로 선정됐다. 특히 신초(열매줄기)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청포도 재배 매뉴얼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宗은 뉴스타영농조합법인 대표, 한국포도회 연구분과사무

국장, 영천지부회장으로 "탐스러운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면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강의를 실시하는 등 사인머스켓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길호 명장은 포도송이 무게는 500~700g, 당도 18도 이상의 규격화된 포도를 생산해 수출하면서 영천포도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왔다. 길호宗은 "영천시 첫 농업명장으로 선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그동안 터득한 포도 재배에 대한 모든 기술을 관내 포도농가에 보급해 영천의 명품 포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에 제1호 농업명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선구적인 농업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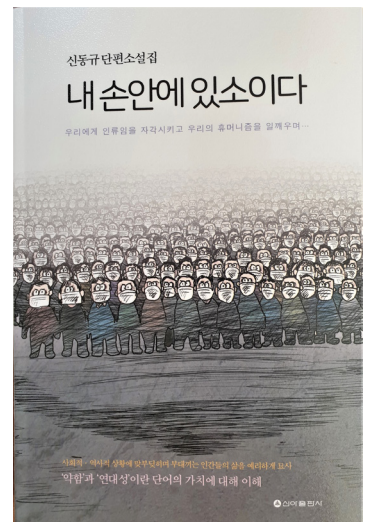
배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영천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단편 소설집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상재(上梓) 소설가 동규(東珪)宗

한국문인협회 국제문학교류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견 작가 동규宗(사간공 35세손)이 이번에 7번째 작품집을 상재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집은 지구촌에 만연중인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내 손 안에 있소이다>를 표제작으로 삼았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힘자랑으로 이웃을 배려치 않는 약육강식의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지구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풍자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외 여순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친 '영웅에게', 지난해 경자년 흉수를 소재 삼은 '잊혀진 계절',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파헤친 '장군의 귀환', 노년층이 읽어야 할 '치매예방하기', 5.18 광주의 참상을 다룬 '각화동' 등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전남 장흥 출생인 동규宗은 1998년 <신동아> 1천만 원 고료 논픽션 공모전과 <문예연구>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종보 154호에 <배.복.신은 한 집안> 155호에 <충절의 쌍벽 신승겸과 기신> 157호에 <서경과 도이장가> 등 시조 할아버지를 숭양하는 훌륭한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저서로 '운명에 관하여' 등 6권의 소설집과 장편 '그리고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으리'가 있다.

財産相續・限定承認・相續拋棄 및 그 실무상 응용



대중중 감사·군수공파도유사 권채 34세 [법무사]

1. 머리말

財産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제997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은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한다. 여기의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된다. 한편 제사상속은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어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2. 相續開始의 時期

가.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①상속인의 자격, 범위 상속순위 능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②상속에 관한 권리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③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 또는 유류분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은 실제로 사망한 때 마지막주소(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하고 사망신고가 행하여지는 시점이 아니고 사망시기의 확정인 의사의 진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는 순간이 사망시기이다.

3. 相續人의 範圍와 順位

가. 血族相續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直系卑屬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혼인중의 출생자인지 혼인외의 출생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친자와 양자 등 법정혈족도 자연혈족과 다름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다만 계모자 사이와 적모 서자 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없다.

직계비속에 관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유류분권도 인정된다.(법정1000조제1항1호)

(2) 제2순위 :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존수가 같으면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존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1촌)와 조부모(2촌)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가측이든 생가측이든 묻지 않는다. 다만, 친양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므로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생가측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동순위로 상속이 된다.

(3) 제3순위 : 被相續人의 兄弟姊妹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성별이나 혼인여부 또는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등이 문제되지 않고 상속권이 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의 차별없이 모두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1990. 1. 13. 법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야하고 판례의 입장도 같다.(대법원 1997. 11. 28. 96다5421호 판결) 형제자매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법제1000조제1항3호)

(4) 제4순위 : 4촌이내의 傍系血族

가.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제4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존수가 다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는 때에는 존수가 가장 가까운 3촌이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존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들에게는 대습상속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이므로 제3순위의 상속인에 속한다.(법제1000조제1항4호)

나. 配偶者相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에는 부부사이에 차이가 없고 부부평등 상속을 한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법제1003조제1항)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 하고,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않지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는 분여청구권을 가진다.(법제1057조의2)

다. 代襲相續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법제1001조, 1003조제2항) 따라서 피대습자가 상속결격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없다.

4. 相續分

1991. 1. 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개정민법 1991. 1. 1. 시행 전에는 피상속인의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만 그들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였고 피상속인의 남편은 그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 개정민법에서는 처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속지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상속분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 출가녀라 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남편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민법제1003조제2항).

가. 法定相續分

법정상속분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이 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한다(법제1007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1009조)

나. 代襲相續分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민법제1009조 법정상속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을 정한다.

5. 相續의 承認과 拋棄

가. 承認拋棄期間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숙려한 후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숙려기간 3월내의 기간은 법적성질은 제척기간이고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법제1026조제2호)

나. 單純承認

사람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단순승인이라하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리고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법제1025조)

다. 法定單純承認

-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 (2)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제1026조)

라. 限定承認

(1)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하여 상속을 한정승인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일정한 법정방식을 따라야 할 요식행위이다.

(2)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 할 수 있다.(법제1028조)

마. 特別限定承認

민법제1019조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한 경우는 상속인이 처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이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뒤늦게 상속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바. 限定承認에 의한 청산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법제1032조1항)

(2) 채무변제의 순서와 방법

(가)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권

(1)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법제1033조)

(2) 채권신고 기간중에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다만,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자인 채권자는 신고기간만료전에도 그 담보권실행으로 목적물의 경매를 할 수 있다.(법제1034조1항단서)

(나) 채권신고기간 만료후의 변제

(1)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한다.(법제1034조1항)

(2) 민법제1019조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남아 있는 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을 합하여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기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을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법제1034조2항)

☞ 다음 호에 계속

우리 힘내요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희망도 다시 차오르네
힘든 시간은 잠깐이야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준식 종(한성윤공 34세손)

지난밤 비바람 세차게 창문을 두드려도
아침이면 맑은 태양 비추듯
우리네 어려움도 맑게 갠거야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희망도 다시 차오르리

누구나 한 세상 살다보면
어렵고 힘든 일 겪은 사람들 투성이지
우리도 그중 하나인 거야
그들도 모두 이겨냈고 잘 견뎠기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땐 좀 힘들었지, ”
회상하며 너털웃음 지을 날 있을거야
태양은 저렇게 힘차게
떠오르지 않나 !

荷堂 신준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동 대학원(석,박사 취득)
월간「문학세계」시, 수필 부문 등단, 문학세계 문학상 대상 수상
대통령 국민훈장 모란장 등 다수 수상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시집 「생의 반환점에서」외 다수
수필집 「비 맞지 않고 크는 나무는 없다」외
저서 「몸의 보약 마음의 보약」외 다수



아버지의 언어들

성균(문희공 32세손)

아버지 !
우리 아버지들은

“그래라” 괜찮다.
“나는 됐다” 그리고 무엇이 마땅치 않으시면
두세 번 헛기침으로 웬만한 건 끝이 난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당신 어깨에 당신의 굵은 두 어깨로
온 식구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슬픈 숨을 쉬신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슴으로 온 식구를 껴안고
가슴으로 웃고 또 가슴속으로 남몰래 우신다.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뒤에 숨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이름 앞에서는
아주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다.

이제는 알겠다.
아버지의 언어들을 비록 색깔은 없어도
바위와 같은 것을
눈부신 햇살이란 것을
푸른 하늘,
하얀 아주 하얀 구름이란 것을
푸른, 연한 바람이란 것을

세월이 말을 해준다. 하늘이 말을 해준다.
아버지 ! 아버지 !

인사

▶ 문철(文澈) 제례·제보위원장



- 전 서울매동초등학교 교장
- 현 한국스카우트 서울 남부연맹장
- 정언공파 중중 도유사

바로잡습니다.

종보191호

- 2쪽 성금 개인 원식 전복정부부시장 → 정부부지사
- 2쪽 우하단 하 3줄 12필지 → 11필지, 하2줄 28 → 27필지
- 3쪽 좌상단 사 11줄 8 → 9
- 종원동정 11쪽 신원식 정부부지사
- 하8줄 정부부시장 → 정부부지사
- 종보성금16쪽 신원식 경기 광주 → 전북 익산

춘천 시조 장절공

춘향제(春享祭) 안내

2022년 4월3일(음력 3월3일/일요일) 시조 장절공 춘향제를 봉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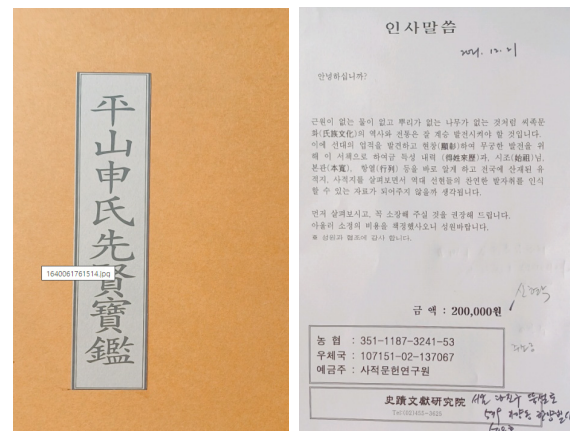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설정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춘향제도 지난 추향제의 연장선상에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장절공 제례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향사 1개월 전, 제례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계획을 3월초에 파종중 및 화사회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동옥(東玉) 제정공파 봉례공중중 도유사 래유를 기원하는 기도회



2021년 12월 23일, 명동성당
(대중중 총무부장, 문화부장, 경리차장)

불법서적 판매 현혹되지 마세요!



근래 저작권자인 평산신씨 대중중의 허락없이 “평산신씨 선현보감”(平山申氏 先賢寶鑑)이라는 책자(20만원)를 사적문헌 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종원들에게 판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중중에 문의하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대중중에서 위와 같은 책자를 발간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니 현혹 되지마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군산 영섭 종]

원 고 모 집

대중중 증보는 매분기 발행되는 평산신씨 종중의 신문으로, 발행 1개월 전까지 올릴 원고를 주십시오.

특히 “삶의 뿌리 아! 아버지”를 각 문중의 세거지, 집성촌 형성시 유래에 대해 아버지, 할아버지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증보를 발간하는 것은 혈족으로써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종중의 역사를 쓰고 생생한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전통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고내용

- ▶ 문중의 재실, 사우, 정려, 비각, 선조제단 등 관련사진과 내용
- ▶ 문중의 유래(세거지, 집성촌)와 사적(관련사진과 내용)
- ▶ 문중의 연례행사(송조, 종중행사, 문중의 임원)
- ▶ 문중의 인물소개(조상 또는 문중의 저명인사, 장차 촉망되는 청,장년)
- ▶ 지역내 선조의 유적 제보
- ▶ 종원동정(효행, 선행, 취업, 승진, 학위취득 등)
- ▶ 宗員이 운영하는 업체 소개 또는 광고
- ▶ 애경사(취업, 승진, 학위취득)

보내는 방법

- ▶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 ▶ 방 법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취임, 선행 등)을 대중중으로 보내면 됨.
- ▶ 보낼 곳 : (우) 04555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대중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

평산신씨대중중 홈페이지에는 평산신씨 소개, 선조유적지 등의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또 전자대동보를 열람할 수도 있으며, 족보수단(신규등록, 수정,삭제 등)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또 대중중 행사에 대한 일정, 내용, 사진, 동영상, 공지사항 등을 볼 수가 있으며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원께서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 '평산신씨대중중'을 치시고 주소에 클릭.
- 전자주소 : <https://www.pyongsan.com>
- 열람은 회원가입전이라도 가능하며 종원이 아닌 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족보열람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안내된 계좌번호로 송금(1년 : 3,000원, 5년 : 10,000원) 하시면 됩니다.

증보 상금 보내주신 분 (10.23 ~ 12.24)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동영 순천	20,000	완섭 서울 구로구	20,000
경철 서울 용산	50,000	현진 서울 서초구	50,000
동직 경기 연천	50,000	현길 충남 공주	20,000
현업 제정공	50,000	문웅 전 서울화수회장	50,000
기철 대구 수성구	20,000		

소 중 증

사간공파 매곡종중(대구)	50,000	한들중증 음성군 소이면	50,000
---------------	--------	--------------	--------

시도 화수회

제주도 화수회	100,000	서울시 화수회	100,000
---------	---------	---------	---------

시군구 화수회

부여군 화수회	30,000
---------	--------

총 계 : 660,000원

<증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파중증·시·도 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소중증·시·군·구 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증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증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중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4월 행사 안내

1월1일 ~ 1월 31일 : 2022년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1월1일 ~ 1월 31일 : 2022년 대중중표창대상자 서류접수

2월 7일 : 장학.상별위원회 개최 예정

2월 18일 : 회계감사 예정

3월 3일 :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회의 예정(오전)

상임유사회개최 예정(오후)

3월 14일 : 제1차 제례제보위원회 개최예정

3월 15일 : 덕양서원 춘향제(음2월13일 중정)

3월 28일 : 대중중 총회 예정

4월 5일 : 승의전 춘향사

4월 6일 : (한식) 표충재 향사 / 제정공파조 향사

4월 3일 : 시조장절공 춘향사(음 3월 3일)

4월 20일 : 예정 증보 193호 발행 예정

4월 14일 : 율리사.경백사 향사(음력 3월14일 중정일)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謹賀新年

2022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家內 康寧하시길 祈願 드립니다.

壬寅元朝

大宗中 都有司：澈秀

名譽都有司：相式	名譽都有司：甲湜	名譽都有司：吉淳
顧問：鉉銖	顧問：鉉埰	顧問：鉉德
顧問：龍水	顧問：璇澈	顧問：光淳
顧問：日淳	顧問：東振	顧問：東銀
副都有司：鳳湜	副都有司：文澈	副都有司：根澤
副都有司：鉉大	副都有司：東錫	副都有司：鉉文
副都有司：鉉德	副都有司：龍澈	副都有司：亨湜
副都有司：芳湜	監查有司：權彩	監查有司：民澈
監查有司：鉉晚	密直公派都有司：彦植	掌令公派都有司：鉉茂
縣令公派都有司：豪均	文僖公派都有司：鳳湜	正言公派都有司：文澈
漢城尹公派都有司：東洙	思簡公派都有司：根澤	溫水監公都有司：載湜
齊靖公派都有司：亨燮	典書公派都有司：東錫	貳相公派都有司：善均
判事公派都有司：盛壽	進士公派都有司：彪均	監察公派都有司：海澈
判尹公派都有司：城澈	參判公派都有司：垂澈	郡守公派都有司：權彩
龍山壇都有司：鉉大	表忠齋都有司：鉉文	德陽書院都有司：仁鉉
서울市花樹會長：鉉德	仁川市花樹會長：壽均	京畿道花樹會長：鉉晚
江原道花樹會長：龍澈	忠北花樹會長：杭澈	大田·忠南花樹會長：民澈
全北花樹會長：正次	光州全南花樹會長：相南	大邱慶北花樹會長：東夏
釜山慶南花樹會長：相修	濟州道花樹會長：尙燮	

大宗中 總務部長 鉉基 / 文化部長 金澈 / 經理次長 朴兌晞(外孫) / 春川墓域管理所長 鉉澤 / 아세아빌딩管理所長 奉哲

[代議有司]

密直公派：敬熙，垓湜，在哲，在澈，東煥，東旭，亨燮，東曉 **縣令公派**：彦堯，彦琦 **文僖公派**：東元，相泰，命植，鼎鉉，鉉光，晚圭，永鉉，鉉根，蓮堯，圭容，祉容，基亨，龍煥 **正言公派**：鳳均，爽圭，莊均，興均，鉉鎭，相澈，鉉圭，彦權，東國，七均，承澈 **漢城尹公派**：桂萬，周澈，辰燮，承萬，東鎭，明澈，儀燮，載坤 **思簡公派**：永澈，鉉官，燾澈，東雲，龍澈，東郁，祥燮，相吉，鉉福，東福，東勳，弘均，榮燮，冠燮，鉉澤，鉉全 **溫水監公派**：忠湜，文湜，彦植，洪淳，翰燮 **齊靖公派**：東玉，相甲，雄均，元均，鉉瑛，廷燮，光秀，榮大，弘淳，東龍，東天，東完，榮戊，明均，根燮 **典書公派**：鉉和，東洙，亨燮，東一，弦宗 **貳相公派**：相均，濺澈，일근，成澈，世均 **判事公派**：在煥，榮敦，在元，吉鉉，春大，容斗，在鶴，永壽，明鍾，俊太，孝根 **進士公派**：正熙，泰昇，點得，鉉周，東建 **監察公派**：香澈，東元 **判尹公派**：允茂，仁玉 **參判公派**：七均，浩澈 **郡守公派**：錫在，判錫 **龍山壇**：東彦，載沅 **表忠齋**：在鳳，在敦 **德陽書院**：東植，東坤 **서울市(花)**：文雄，昇，允廈，五均，晟澈，金鉉，載元，玉均，日壽，孝湜 **仁川市(花)**：滿洙，鉉寬，鉉淑 **京畿道(花)**：光鉉，永喆，道鉉，奉澈，佑鉉，홍섭，鉉億，定澈，基奉 **江原道(花)**：根澈，鉉睦，長淳，國澈，聖浩 **忠北(花)**：東源，斗澈，相澈 **大田·忠南(花)**：基澈，東植，弘鉉，光燮 **全北(花)**：東烈，成湜，炳澈 **光州·全南(花)**：士鉉，昶日，東吉，興燮 **大邱·慶北(花)**：東一，相敦，相兆，洪兆，承澈 **釜山·慶南(花)**：相領，東勳，相圭，東述，興湜，判湜，大澈，性澈 **濟州道(花)**：寬一，正湜

[所管委員會]

祭禮系譜委員會：文澈(正，委員長)，龍澈(思，副委員長)，東元(文)，承澈(正)，義浩(判)，鉉睦(思)，大秀(正)，佑鉉(文)
獎學賞罰委員會：東錫(典，委員長)，載湜(溫，副委員長)，東薰(思)，在鳳(判)，白淳(思)，鉉鎭(正)，光燮(文)，成澈(貳)，東建(進)
編輯宗規委員會：彪均(進，委員長)，弘鉉(文，副委員長)，鉉官(思)，周澈(漢)，垂澈(參)，東基(齊)，彦琦(縣)，東完(齊)
財產管理委員會：鳳湜(文，委員長)，鉉德(文，副委員長)，在澈(密)，鉉和(典)，鉉珠(齊)，彦權(正)，東天(齊)